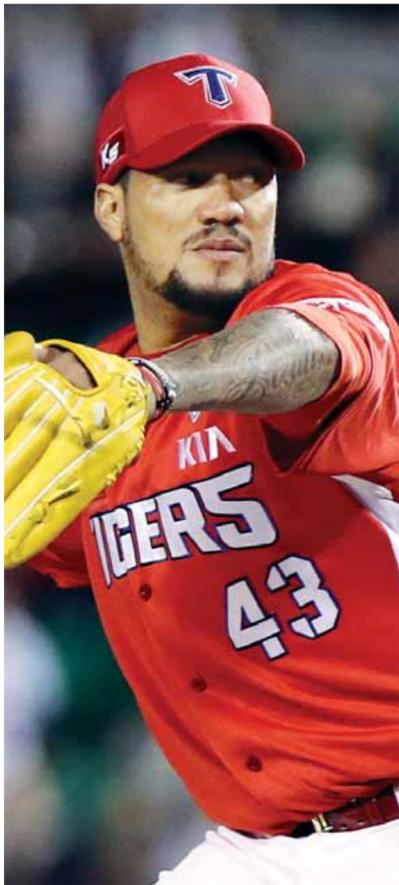


# 외국인 3총사 재계약 “KIA 2연패 부탁해”



헥터



팻딘



버나디나

헥터 200만달러·팻딘 92만5천달러·버나디나 110만달러에 사인

“V11”을 이끈 KIA 타이거즈 외국인 3인방이 ‘통합 2연패’를 위해 다시 뭉친다. KIA가 올 시즌 통합 우승을 합작한 우원투수 헥터 노에시(Hector Noesi·30), 좌완투수 팻딘(Pat Dean·28) 그리고 외야수 로저 버나디나(Roger Bernadina·33)와 재계약을 끝냈다. 우승의 공을 인정받은 세 선수는 모두 인상된 연봉에 재계약 도장을 찍었다. ‘20승·200이닝’을 달성한 헥터는 올 시즌보다 30만 달러 오른 총액 200만 달러에 재계약을 마무리했다. 올 시즌 선발로 30경기에 나선 그는 리그 최다이닝(201.2이닝)을 소화하며 다

승왕(20승)에 올랐다. 양현종과 함께 나란히 20승 고지를 밟으면서 32년 만의 ‘동반 20승’ 기록을 작성했다. 특히 헥터는 2년 연속 리그 최다이닝·팀 내 최다승을 기록하며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다. 헥터는 “우승을 함께 일궈낸 동료들과 내년에도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며 “2018시즌에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3년 연속 타이거즈 선수로 뛰게 된 소감을 밝혔다. 팻딘은 올 시즌보다 2만5000달러 인상된 92만5000달러의 연봉을 받는다. 올 시즌 KIA 유니폼을 입고 KBO리

그에 데뷔한 팻딘은 30경기에 나서 176이닝 동안 9승(7패)을 기록했다. 정규시즌 중반 부진을 딛고 후반기 가장 믿음직한 선발로 활약한 그는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는 7이닝 3실점 호투를 선보이며 팀의 11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견인했다. 팻딘은 “다시 열정적인 KIA 팬들 앞에서 마운드에 오를 수 있어 기쁘다”며 “올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고 말했다. 버나디나도 25만 달러 인상된 총액 110만 달러에 KIA 잔류를 확정했다. 팻딘과 함께 KBO리그 데뷔 시즌을 보낸 버나디나는 139경기에 출전해 타율 0.

320, 27홈런, 111타점, 118득점, 32도루로 팀 공격을 이끌었다. 초반 부진을 딛고는 팀 역대 최초의 100타점-100득점 기록과 팀 외국인 선수 최초의 사이클링히트, 20홈런-20도루 클럽 가입 등 눈부신 기록을 남겼다. 팬, 동료와 함께 하는 특유의 ‘헬멧 세러모니’도 화제였다. 버나디나는 “최고의 동료들, 열정적인 팬들과 다시 호흡할 수 있어 기쁘다. 내년 시즌에도 팀이 우승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재계약 소감을 밝혔다. KIA는 우승의 주역이었던 헥터, 팻딘, 버나디나와의 재계약을 마무리하면서 2018시즌에 뒤편 외국인 선수단 구성을 마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6m 이글 퍼트...우즈 살아있네

10개월만에 복귀전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 프로암 18홀 소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2·미국)가 10개월 만에 복귀전을 앞두고 치른 프로암 경기에서 6m 거리 이글 퍼트에 성공하는 등 건재를 과시했다. 우즈는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간) 바하마 나소의 알바니 골프클럽(파72·7302야드)에서 열린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 프로암 경기에서 18홀을 소화했다. 올해 2월 유라피언투어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 1라운드를 마친 뒤 허리 통증으로 기권한 우즈는 이 대회를 통해 약 10개월 만에 필드 복귀전을 치른다. 프로암은 대회 개막에 앞서 대회를 후원해준 스폰서나 지역 관계자 등이 선수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이벤트다. 선수들에게는 대회 개막을 앞두고 코스 적응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우즈가 이날 프로암을 통해 이번 주 처음으로 18홀을 돌았다”며 “패어웨이를 놓친 적이 한 번밖에 없었고 스코어는 대략 3, 4언더 파 정도가 됐다”고 보도했다. 우즈는 특히 약 300야드 정도 되는 7번 홀(파4)에서 드라이버샷으로 공을 그린에 올린 뒤 약 6m 거리의 이글 퍼트에 성공했다. 프로암을 마친 뒤 우즈는 “드라이브샷 느낌이 좋아서 공이 잘 맞은 것 같다. 아이언샷의 거리 감각을 좀 더 올려야 하고, 칩샷도 가다듬어야 한다”고 소감을 밝히고 연습장에서 마지막 샷 점검을 했다. 지난 4월 허리 수술을 받은 우즈는 “오랜만에 대회 출전이라 내일 1라운드가 무척 기다려진다. 동반 플레이를 하게 된 토머스와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우즈는 토머스의 ‘도발’에 침착하게 대응했다. 토머스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즈가 이 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한번 혼쭐을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당돌한 포부를 밝혔다. 우즈는 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연한 얘기”라며 “그건 나도 마찬가지”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했다. 또 우즈는 PGA 투어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잭 니클라우스의 메이저 18승 기록을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도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메이저 14승을 기록 중인 우즈는 2008년 US오픈 이후 메이저 우승이 없다. /연합뉴스

## 스켈레톤 정소피아 평창 기대된다

북아메리카컵 6차 대회 금

한국 여자 스킨레톤의 ‘간판’ 정소피아(24·강원BS경기연맹·사진)가 북아메리카컵 6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소피아는 지난 30일 미국 유타 주 파크 시티에서 열린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북아메리카컵 6차 대회 여자 스킨레톤 경기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42초3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정소피아한테 각각 0.08초, 0.18초 뒤진 중국 선수들이 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정소피아는 하루 전 같은 곳에서 열린 5차 대회에서는 캐나다 선수보다 0.25초 느린 기록으로 은메달(1분43초09)을 차지했다. 그는 이처럼 두 대회 연속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더 나아가 선전을 기대하게 했다. 김은지(25·강원BS경기연맹)는 5, 6차 대회에서 모두 11위에 올랐다. 한편, 평창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는 남자 스킨레톤의 윤성민(23·강원도청)은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월드컵에서 세계랭킹 1위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



## KIA 팬들 이웃사랑도 MVP

이강안 완도 푸른피중앙의원 원장  
2013년부터 차영화 코치 돕기 성금

“타이거즈 열혈팬” 이강안 원장(81·완도 청산 푸른피중앙의원·사진)에게 12월은 야구로 사랑을 실천하는 달이다. 이 원장의 특별한 사랑 나눔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3년. 광주일보 기사를 통해 KIA 차영화 코치가 병상에 있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작은 정성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광주일보를 통해 성금을 전달한 이 원장은 매년 잊지 않고 ‘추억 속 스타’의 쾌유를 빌고 있다. 이 원장은 오는 2일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를 앞두고 올 겨울에도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에는 (유)동부약품 김상배 대표가 이 원장과 뜻을 함께했다. 이 원장은 청산도 작은 섬을 찾아 인술을 베풀고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면서 ‘청산도 슈바이처’로 통한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석류장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KIA는 매년 정성을 전해오는 이 원장을 챔피언스필드로 초청하기도 했다. 당시 선수단 상조회장이었던 이범호가 직접 나서서 이 원장을 시구자로 초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원장은 “타이거즈에 감사하다.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해줘서 우승할 수 있었다. 김기태 감독의 리더십이 훌륭했다. 기다림으로 부진했던 선수들을 인내하고, 꾸준히 경기를 이끌어가면서 우승을 할 수 있었다”며 “차영화 코치도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꼭 쾌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내 아나운서 MC이슈 소외계층에 연탄배달  
매년 재능기부·사랑의 식사 등 나눔활동 앞장

KIA 타이거즈 장내 아나운서로 활동 중인 MC이슈(본명 이희승)가 연말을 맞아 광주지역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선다. MC이슈는 내달 2일 KIA팬 40여 명과 함께 광주 북구 동림동 지역 소외계층 가정을 찾아, 연탄 4250장과 쌀 250kg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탄 4250장 가운데 1000장은 KIA 투수 양현종이 “나눔 활동에 보탬이 되고 싶다”면서 기부했다. 광주 출신인 MC이슈는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KIA 팬들과 함께 동명동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가정에 연탄 3000장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또 지난 설 명절에는 광주금호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대접하고 흥겨운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갖는 ‘사랑의 식사’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다. KIA 내야수 김선빈이 아내와 참여해 사랑 나눔에 함께하기도 했었다. ‘MC이슈’ 이희승 씨는 “KIA타이거즈 장내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받은 관



심과 사랑을 고향인 광주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어 나눔 활동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마이크를 잡고 즐거움을 드리는 재능기부와 사랑의 식사, 연탄기부 등 나눔활동을 꾸준히 펼쳐서 좋은 기부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마무리 캠프 선수단 귀국

오늘 봉사활동·팬 페스트 등

KIA 타이거즈 마무리 캠프 선수단이 지난 30일 귀국했다. 선수단은 지난 3일부터 일본 오키나와 긴구장에서 마무리 캠프를 차리고 훈련을 치러왔다. 이번 마무리 캠프는 2018시즌을 위한 체력과 기술 강화 그리고 팀 전력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진행됐다. 삼성 라이온즈와 한 차례 연습 경기를 갖고 실전 점검도 했다. KIA는 삼성과의 연습경기에서 14-5 대승을 거두며 화끈한 공세를 펼쳤다. 캠프를 이끌었던 정회열 퓨처스 감독은 “성실하게 캠프를 마친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에게 고맙다. 1군 무대에서 뛰었던 선수들은 한층 성숙해졌고, 젊은 선수들은

스스로 노력하며 기량 발전을 가져온 것이 성과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으로 돌아온 마무리 캠프 선수단은 귀국과 함께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1일 오후 1시부터 챔피언스필드 인근 임동 지역 기초수급 가정과 지역 아동센터에 쌀과 김치, 방한용품 등을 전달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봉사 활동에 나서는 이들은 오후 6시에는 광주여자대학교 시립유니버시티 아드체육관으로 이동해 팬들과 함께하는 ‘KIA타이거즈 V11 팬 페스트’에 참가한다. 2일에는 외야수 나지완의 결혼식과 선수단 합석식 그리고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 호프와 사인회 등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